



수입 감소·재고 축소 철강가격 인상 시동

국내 철강업체가 주요 품목 전반에서 가격 정상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저가 물량 소진과 원가 부담 누적 속 가격 조정이 확산되며 철강사 수익성 개선과 투자 여력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음달부터 열연 제품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한다. 열연 인상분은 냉연·도금 제품 가격에도 연동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열연 유통가는 지난 23일 기준 톤당 81만원 수준으로, 인상분 반영 시 86만원선까지 오를 전망이다.

포스코, 열연값 t당 5만원 인상
냉연·도금 제품도 인상분 연동

동국제강, 후판가격 인상 적용
현대제철도 내달 t당 3만원 ↑

중국·일본산 열연에 대한 잠정관세(28.16~33.57%)가 오는 6월 22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현대제철도 열연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판 유통가격도 공급가 조정에 들어갔다. 동국제강은 유통·건설용 후판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에 지난 23일 주문 투입분부터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도 오는 2월 주문분을 대상으로 후판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저가 물량 소진 이후 제조사 중심의 공급가 인상 여건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봉형강은 H형강과 철근에서 각각 고시가 상향이 이뤄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 19일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 가격을 톤당 108만원으로 고시해 직전 유통가격(약 103만원) 대비 5만원 올렸다. 현대제철도 같은 날부터 소형 H형강을 108만원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거래처

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근은 동국제강이 1월 4주차 유통향 고시가격을 전주 대비 1만5000원 올려 74만원을 제시했고, 현대제철도 월말까지 74만원 수준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가 부담은 봉형강 가격 조정의 직접 배경으로 꼽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이 5분기 연속 동결됐지만, 철스크랩 등 핵심 원재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원료 전문데이터센터인 스틸웨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철스크랩 가격은 톤당 44만원으로 전년 동기(35만원) 대비 26% 상승했다. 수급 측면에서도 지난해 H형강 수입량이 27만5000톤으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격 조정 여건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관은 할인을 축소를 통해 실질 공급가를 조정한다. 세아제강은 내달 2일 출하분부터 백관과 흑관 할인을 각각 5%, 6% 축소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전력비·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할인을 축소해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가격 정상화가 단기적으로 철강사의 스프레드 개선과 가동률 방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일정 수준 회복돼야 설비 효율화와 고부가 제품 전환, 탈탄소 투자 등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재운 철강산업연구원은 “철근은 건설사와 반기 단위로 협의를 통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후 각 제강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구조”라며 “감산은 공급 물량을 줄여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원료가격 상승이나 실수요 회복, 혹은 실거래가격의 추가 하락 방지가 뒷받침돼야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삼성전자, 4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연간 영업익 33% 증가한 43.6조
분기 매출 93.8조, 영업익 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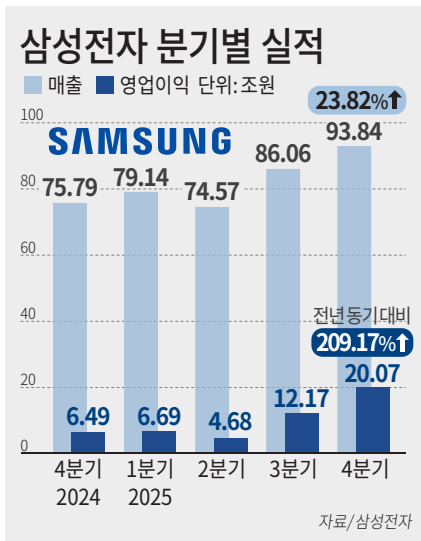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지난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3조6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333조60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순이익은 45조2068억원으로 31.2% 늘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58조8900억원), 2017년(53조6500억원), 2021년(51조6300억원) 이후 역대 4위 기록이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73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2% 늘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93조8374억원과 19조6417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4분기 DS 부문은 매출 44조원, 영업익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DX 부문은 매출 44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 사업을 맡은 MX 사업부는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4분기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성장과 태블릿·웨어러블의 안정적 판매로 연간 실적은 두 자리 수익성을 기록했다.

TV 사업을 맡은 VD 사업부는 Neo QLED,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견조한 판매와 성수기 수요 대응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확대됐다.

생활가전은 계절적 비수기가 지속되

고 글로벌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하락했다. 하반기는 매출 4조6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매출 9조5000억원, 영업이익 2조원으로 집계됐다.

중소형은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수요 확대와 IT 및 자동차 제품 판매 확대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고, 대형은 연말 성수기 시장 수요 대응으로 판매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하고 HBM 판매도 확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올해 글로벌 관세 등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며 수익성 확보 중심의 안정적 경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비로 지난해 4분기 10조9000억원,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인 37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각각 40조9000억원, 3조3000억원을 계획한 시설투자는 각각 47조5000억원, 2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로는 당초 계획했던 47조4000억원에서 5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양성운 기자 ysw@

용산·과천·태릉 등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1·29 주택공급 대책

서울도심 유휴부지·노후청사 활용
국유지 47%, 공공기관 부지 36% 등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핵심 물량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태릉CC 역시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매번 언급됐지만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함께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7일 135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연장선에서 신규주택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를 포함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지는 국유지가 2만8100호(47%)며 공공기관 부지와 공유지가 각각 36.7%, 5.7%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절반이 넘는 3만2000호(53.3%), 경기도 2만8000호(46.5%)다. 핵심물량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와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등이다. 이밖에 경기 성남에서는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6300호가 조성되며,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호) 등도 활용한다.

수도권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명경찰서(550호), 하남 테니스장(300호), 강서군 부지(918호), 남양주 군부대(4180호) 등이 대상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와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 노후화된 도심 청사도

주택으로 바뀐다.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날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과천 등 대형 사업지 발표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지만 강남 등 핵심 입지에 대한 공급 부족과 대형 후보지(용산·태릉)의 경우 실현 불확실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재 등으로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與 “대미투자특별법 국힘과 협상 중…비준 관계없이 통과 필요”
▲송언석 “李 정권, 문제만 터지면 남탓…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얘기조차 없어” /사진 뉴시스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與 한병도 “법원, 김건희 ‘V0 본질’ 외면…2차 종합특검 당위성”

▲통일부 “DMZ법,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 안 돼” …유엔사 비판 반박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현판식 개최…“민원서비스 강화”

함영주, 업무방해 혐의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 유죄판단 법리 문제 삼아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가능성 커져
하나금융, 경영 불확실성 해소 국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회장이 8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함 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거슬러다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법리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개인정보 보호 소홀 ‘티머니’ 과징금 5.3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NHN커머스·한국연구재단 등 엄중처벌

교통카드 서비스인 티머니가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해킹을 허용하면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3400만 원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 약 12일간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테핑’ 공격을 감행했다. 해커는 전 세계 수천 개의 IP 주소를 동원해 총 1226만 차례가 넘는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회원 계정 로그인에 성공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T머니리치’를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빼돌렸다. 당시 티머니 웹사이트에는 평상시보다 68배나 많은 로그인 시도되는 등 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렷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티머니 측은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티머니 외에도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NHN커머스와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NHN커머스는 10년이 지난 구형 솔루션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책임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2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10년 넘게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해온 점이 지적되어 7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美 기준금리 동결… 파월 “현 수준 적절”

위원 2명 반대… 25bp 인하 주장
성명문 ‘실업률 안정화’ 표현 추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다만 2명의 위원이 0.25%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져, 향후 금리 조정의 시기·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유지(3.50~3.75%)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성명문 문구 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뒷받침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이번 성명 변화와 관련해 종전 문구 가운데 “고용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내용과 “리스크 균형의 이동”을 언급한 대목 등이 삭제됐다고 정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는 지난해 세 차례 회의에서 75bp 인하돼 중립금리 추정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며 현 수준을 “적절한 기조”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은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아니며 회의 때마다(meeting by meeting) 들어오는 데이터, 전망, 리스크 균형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번 회의와 함께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도 재확인했다. 물가목표를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 기준 2%로 유지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 고정(anchor)되도록 필요 시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12월 기준 PCE 물가상승률이 2.9%, 근원 PCE가 3.0%”라고 제시하면서, 높은 수치가 “관세 영향으로 재화 부문 물가가 자극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동결 자체는 선반영’됐지만, 인하 기대는 일부 후퇴했다. 연방기금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3월 25bp 인하 기대는 전일 14.9%에서 12.9%로 낮아졌고, 상반기·연내 인하폭 전망도 소폭 축소됐다. 다만 발표 직후 가격지표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한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FOMC 결과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 국채금리·주가·달러화가 보합 또는 소폭 상승(미 2년물 0bp, 나스닥 +0.2%, DXY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내 정책당국도 경제 수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정부 섣다른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을 거론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기로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김정관 장관, 급거 방미… “입법·투자 등 관세협상 오해 풀 것”

트럼프대통령 관세인상 언급 배경 확인
디지털 규제 관련 해석에는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법을 찾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델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이뤄진 급거 방미다.

김 장관은 이튿날인 29일 오후(한국 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배경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및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델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일단 국내 (대미투자) 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법 집행 상황에 불만을 가진 걸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기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쿠팡 사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규제가 관세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들은 항상 있어왔기에 잘 관리하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기선 회장, 모디 인도총리 회동… 조선산업 협력 의지 표명

(HD현대)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 참석

정기선 HD현대 회장(사진)이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 조선산업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HD현대에는 28일(현지시간) 정기선 회장과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가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India Energy Week 2026)’의 공식 행사로 모디 총리를 비롯해 인도 관계부처 장관, 국영기업 대표, 글로벌



별 기업 CEO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 육성을 위한 모디 총리의 정책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HD현대도 인도에서 추진 중인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HD현대에는 인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도는 해의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HD현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에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참여를 위해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 코친조선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인도 측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하딕 싱 푸리 석유천연가스부장관과 라자(T.R.B. Rajaa)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삼성전자, 2나노 양산 가속… HBM4도 ‘2월 출하’ 승부수

1세대 신제품 생산 체계 전환
차기 공정 하반기 목표 개발
고객 설계·검증 협업 확대 병행
최상위 제품 공급 일정도 제시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준비 중

삼성전자가 4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차세대 공정 개발과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나노(nm·10억분의 1m) 1세대 신제품 양산에 본격 돌입한 데 이어 2나노 2세대 공정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의 내달 출하 일정을 제시하며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29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2나노 2세대 공정은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현재 수율 및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재 주요 고객사들과 제품 설계를 위한 PPA, 테스트 칩 협업을 병행하고 있어 양산 전 단계에서의 기술 검증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4나노 공정은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주요 마일스톤을 계획대로 달성

하며 개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테일러 팹의 경우 올해 적기 가동을 위해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HP

C 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및 사업화 협업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AI·HPC 응용처를 중심으로 올해 2나노 수주 과제는 전년 대비 1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BM4 출하 계획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HBM4 물량의 양산 출하를 예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HBM4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발 착수 단계에서부터 높은 성능 목표를 설정했다”며 “고객사들의 요구 성능이 높아졌음에도 지난해 샘플 공급 이후 재설계 없이 순조롭게 고객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퀵 테스트(품질검증)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며 “2월부터 최상위 제품인 11.7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HBM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준비된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고객들로부터 전량 주문 확보를 완료했다”며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공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들의 올해 HBM 수요가 당사의 공급 규모를 넘어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급증하는 AI 수요 환경에서 HBM 공급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AI 응용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AI 응용에서는 고성능 고용량 제품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술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단 공정 확보가 D램과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D램은 1c 나노미터 공정, 낸드는 V9 공정을 중심으로 선단 공정 캐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AI발 메모리 호황’… 삼성 영업익 ‘첫 추월’

연매출 97조·영업익 47조 사상 최대
4분기 영업익 19조, 이익률 58%
HBM4 점유율 자신, 양산 준비 본격
M15X 증산·선단 전환, 글로벌 투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시장에서 주도권을 굳히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연간 전자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며 업계 내 위상을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HBM4에서도 HBM3-HBM3E와 같은 압도적 점유율을 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기 승부수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9일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회(컨퍼런스콜)를 열고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8%, 101.2%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500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친 것이다.

4분기 성장세는 더 두드러진다. 4분기



SK하이닉스 이천 M16 전경.

/SK하이닉스

매출은 32조 8267억원, 영업이익 19조 1696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분기 대비 34%, 6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58%를 기록하며 세 지표 모두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이 자리한다.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난 반면 업계의 공급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는 분석이다.

이번 성과의 출발점에는 최 회장의 결단 이 있다. 그는 STX 그룹과의 수개월에 걸친 협상과 경쟁 끝에 지난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최 회장은 그해 11월 이천 본사를 직접 방문해 “SK그룹 회장으로서 하이닉스를 성공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시장의 주목을 받기 이전부터 성장하는 AI 학습분야에서 HBM의 잠재력에 주목해왔다. 일반 D램보다 웨이

퍼 소모량이 3배 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율과 열 관리, 적층 정밀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정을 끊임없이 고도화해 왔다.

이같은 장기간의 투자는 HBM4를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4 물량 중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된 양산 능력과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HBM4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따른다. 이는 당초 SK하이닉스가 HBM4 수요의 50% 이상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한 이후 엔비디아에 대량의 유상 샘플을 공급해 왔다. 최종 검증 단계에도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주요 고객사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SK하이닉스는 고객 수요 충족을 위해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고객사와 인프라 파트너사

들이 당사 제품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 우위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올해 M15X 생산량을 조기에 극대화하고 1c나노 D램과 321단 낸드로의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인 1기 팹의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며 청주 P&T7과 미국 인디애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제조 역량을 강화해 고객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제품 공급자를 넘어 시스템 관점에서 고객 AI 성능 요구를 구현하는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HBM을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과 공정, 패키징, 솔루션 역량을 통합해 고객의 컴퓨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AI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서 실적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포부다.

/차현정 기자 hyeon@

‘주 52시간’ 족쇄 그대로… 반도체특별법 ‘반쪽 지원’ 우려

R&D 예외조항 최종안서 제외
클러스터·인프라·세제지원 근거
업계 “개발 지연엔 양산도 차질”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족쇄로 여겨진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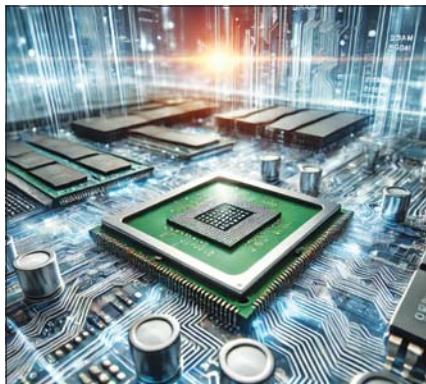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무제한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지원’에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은 신제품 전환 시기에 6개월~1년가량 집중 근무를 필요로 하지만 현행 근로시간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은 R&D 인력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적 차이가 지속될 경우 기술 개발 속도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

특히 개발 일정이 조금만 늦어져도 공정 확보·양산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장비·소재·부품 등 연관 산업의 개발 흐름에도 영향을 미쳐 반도체 산업 전체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일개 산업이 아닌 글로벌 국가 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는데 특별법 내 52시간 항목 제외되면서



챗GPT로 생성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경쟁에서 뒤쳐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기아, 합산매출 300조 돌파 “철강·LNG로 수익성 방어”

현대차 186조, 기아 114조 달성
양사 지난해 매출 역대최고 기록

합산 영업이익은 20조5460억
美 관세부담비용에 영업이익 감소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합산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다. 양사는 매출 300조 시대를 개막했지만 미국 관세 여파로 총 7조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현대차는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6.3% 증가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전년 보다 19.5% 감소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수치다. 기아 역시 지난해 매출이 역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매출은 300조3954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20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3% 늘고, 영업이익은 23.6% 줄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관세 부담 비용으로 총 7조2000억원을 추산하고 있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 감



현대차 기아 양재동 본사.

소분 6조3607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양사는 올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고부가 차량을 중심으로 수익성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아는 평균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확대에 위기를 돌파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SUV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유럽에서는 EV2를 시작으로 EV 모든 제품군을 완성해 유럽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가 절감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부가 차량과 함께 로봇틱스 등 피지컬 AI와 같은 미래 사업으

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에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올해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는 판매 415만 8300대,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 1.0~2.0%, 영업이익률 목표 6.3~7.3% 등으로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을 둔화와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해 영업이익 1조1809억… 35% ↑



매출 45.9조… 전년 비 5.7% 줄어
불확실성 속 흑자기조 현금흐름 유지

LG화학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며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업황 부진 속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재무 관리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LG화학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5조9322억원, 영업이익 1조180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줄었

으나 영업이익은 35.0%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413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1조1971억원으로 8.8% 줄었고 당기순손실 역시 1조572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석유화학, 전지소재 등 주요 사업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추진, 엄정한 시설투자(CAPEX) 집행, 보유 자산 유동화 등을 병행해 흑자 기조의 현금흐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LG화학

의 지난해 매출은 약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은 대외 경영환경을 고려해 올해 매출 목표를 23조원으로 설정했다.

차 사장은 올해 사업 전망과 관련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 각 사업 부문별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며 고부가 산업 구조로의 전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 차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성향 확대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시 확보되는 재원의 약 1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ESS·소형전지 성장… 영업이익 134% ↑



지난해 매출 23.6조, 영업이익 1.3조
ESS 시장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전기차(EV) 수요 둔화 속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고수익 제품 중심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는 자산운영 효율화와 포트폴리오조정을 병행하며 ESS와 소형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에 매출 23조6718억원, 영업이익 1조3461억원

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25조6196억원) 대비 7.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5754억원)보다 133.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조1415억원, 영업이익은 1220억원 손실이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5조6999억원) 및 전년 동기(6조4512억원) 대비 각각 7.7% 증가, 4.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6013억원) 대비 적자 전환, 전년 동기(2255억원 손실)와 비교했을 때는 45.9% 증가했다.

4분기 실적에는 북미 생산 보조금 3328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제외한 영

업이익은 4548억원으로 적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전기차(EV) 시장은 10%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전동화 확대, 기후 변화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주요 전략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는 EV 수요가 구매 보조금 일몰 영향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ESS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매출 69조, 영업이익 1.8조
일회성 손실 몰려… ‘일시적 저점’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9조950억원, 영업이익 1조8270억원, 순이익 50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0%, 15.7%, 47.4%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환경 속에서도 철강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이차전지소재 부문의 초기 가동 비용과 인프라 부문의 일회성 손실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성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의 철강 및 리튬 광산 투자 등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올해 해외 철강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리튬 가격 회복에 따른 상업생산 본격화, 일회성 비용 해소, 적자법인 구조개편 등을 통해 실적 개선 동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철강부문은 포스코 별도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8% 감소한 35조110억원을 기록했지만,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구조적 원가 혁신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1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주원료비 상승과 주요 공장 수리로 생산·판매량이 일시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을 방어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리튬 가격 약세에도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다만 포스코아르헨티나 등 지난 2024년 말 준공된 신규 공장들이 상업생산을 개시하며 초기 가동비용

이 일시 반영돼 연결 영업이익은 지표상 하락했다. 회사는 올해 가동 안정화로 수익성 저하 요인을 빠르게 해소할 계획이다.

인프라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세넥스에너지 LNG 증산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 등 밸류체인 확장으로 견조한 이익을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플랜트 수주 확대에도 공사 중단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주요 공장 수리, 적자법인 매각 비용, 건설사업 일회성 손실이 집중되며 일시적인 실적 저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철강·LNG 사업의 안정적 수익과 리튬 상업생산 개시 효과로 실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국내의 주요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수익·비핵심 자산 구조개편을 통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는 중점 경영계획도 밝혔다.

철강부문은 포항(에너지용 강재)·광양(모빌리티 강재) 제철소별 특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 등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해외 합작 프로젝트도 ‘완결형 현지화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생산 돌입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며, 호주 리튬광산 지분 인수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실적 기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프라부문은 호주 세넥스에너지 LNG 증산 체제와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를 기반으로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

CJ올리브영, 입지별 맞춤전략 고도화

광화문에 ‘올리브베리’ 매장 오픈
직장인·관광객 중심 유동성과
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 공략

국내 라이프스타일부터 미용의료, 글로벌 MZ 트렌드 중심지까지. CJ올리브영이 입지별 맞춤 전략으로 K쇼핑의 지형도를 고도화하고 있다.

2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 CJ올리브영의 ‘올리브베리’ 첫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연다. 직장인이 많고 국내외 방문객 중심의 유동성을 갖췄으며 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장소다.

올리브베리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이 그간 구축한 헬스 부문을 웰니스 전반으로 확장해, 130여 평 규모 복층 매장에 500여 개 브랜드의 30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1층 매장에는 간편식을 주로 내놓는다. 샐러드, 식사 대용 고단백질 등을 구성해 바쁜 일상에서 건강관리형 식단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 수요를 공략한다. 2층에서는 웰니스 제품군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헬스 스낵, 라이트 밀 등을 비롯해 이너뷰티, 슬리밍, 슬립뷰티 등을 전문적으로 소개한다.



‘올리브베리’ 전경.

/CJ올리브영

활기찬 에너지 보충과 편안한 휴식까지 아우르는 것도 특징이다. 운동용 에너지젤이나 스포츠용품부터 차(茶) 및 대체 커피와 같은 카페인 대용 음료, 아로마테라피, 조명, 파자마 등까지 다양한 상품들로 웰니스 소비 선택지를 넓힌다.

올리브영은 올리브베리를 통해 국내 웰니스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데이터를 보면 최근 10년간 웰니스 부문은 꾸준히 커졌다. 2025년 기준 올리브영 내 웰니스 매출은 2016년 대비 864%, 같은 기간 해당 구매 고객 수는 507% 성장했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 전 세계 10명 중 7명이 ‘현재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여야,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野, 반도체특별위 추후 논의 거둬
필버 사회권 상임위원장까지 확대
학교급식법·제헌절 공휴일 등 처리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위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답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

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제명된 한동훈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최고위, 찬성으로 의결
친한계 의원들, 지도부 사퇴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계시관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

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엿보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

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파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李 “할 일 많은데 답답… 입법·행정·집행 속도내야”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국민 체감 정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이라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

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으면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 출범)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

하게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변화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이다. 보통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좋는데 직접 못 만난다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책 또는 전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단순함 위에 쌓아 올리는 정교함으로 성장세 고도화”

2026 카드사 생존전략

현대카드

작년 3분기 업계 유일 순익 증가
카드·커머셜사업 ‘빌드업 단계’서
올해 외부 변수에 현명 대응하고
프리미엄·준프리미엄 시장 속도

현대카드의 올해 사업 전략은 ‘정교함’이란 단어로 집약된다. 기존 현대카드·현대커머셜의 강점을 단순화하고 여기에 정교함을 더해 앞으로 성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 성장세 지속, 외부 변수 대응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이 성장세, 순익 등 모든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든 해”라고 평가하며 “2026년에는 성장세의 지속과 외부 돌발 변수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 과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를 거둔 만큼,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3분기 업계에서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3분기 현대카드 순이익은 895억원, 누적 순이익은 25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3%, 6.2% 증가했다. 신용카드 상품 라인업 강화에 따른 회원 유입 확대의 영향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 부티크, 알파벳카드 등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우량 회원 중심의 회원 수가 증가했다”며 “신용판매 취급액도 견조한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카드 회원 수는 지난 2022년 약 1104만명에서 2025년 3분기 126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 단순화·정교함으로 사업 고도화

기존 성장세를 유지·강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함’과 ‘정교함’을 키워드로 한 전략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2025년까지가 현대카드·현대커머셜 사업의 그릇, 모양, 크기를 새롭게 설계하고 바꾸는 빌드업 단계였다면, 2026년부터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고도화 단계로, 단순함 위에 쌓아 올리는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사업 정의와 강점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고도화를 위한 추진력과 정교한 전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상품을 정리하고 이를 발전시킨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 사업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고도화시킨 현대커머셜의 산업금융, 현대카드·현대커머셜만의 인공 지능(AI)을 정의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테크 영역이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 프리미엄 시장·테크 영역 확장

현대카드는 올해 기존 전략을 유지하고 특히, 프리미엄업과 준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카드는 이미 지난해 ‘부티크(Boutique)’ 상품 3종을 출시하고 준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외에도 연회비가 300만원에 달하는 ‘더 블랙’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고객군을 확보해 왔다.

AI를 중심으로 테크 사업 역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정 부회장은 “성공의 엔진은 AI다”라며 “1~2등 카드사가 되는 것보다 AI에 압도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점포 장들과 신년 화상회의를 가졌다. /NH농협은행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글로벌 수익성 강화 등 2026년 3대 전략 공유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 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2026년을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한다.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한다.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 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트럼프 “약달러 바람직”… 환율 1420원대 진정세

달러값 4년 만에 최저수준 하락
‘관세 25%’ 협상국면, 영향 제한

작년 10월부터 빠르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값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고 언급해왔다. 불안 요소로 남아있던 트럼프의 ‘25% 관세’ 발언도 협상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다.

2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26.3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증가 대비 3.8원 상승해 전일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지만, 이틀 연속으로 1420원대에 거래되며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 환율이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이 마지막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작년 9월 말 1400원대에 돌입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했다.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 해외투자 증가 등을 이유로 국내 달러 수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와 공급 간 불균형이 지속된 영향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환율 상승은 지속됐으며, 올 들어 일평균 환율이 1460원에 육박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 20일 1478.1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의 달러 약세가 바람직하겠다고 밝히면서, 달러의 약세 전망이 뚜렷해져서다.

뉴욕선물시장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장중 95.55(100보다 높으면 달러 강세)까지 내렸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 내 불확실성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최근의 달러 약세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

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달러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항상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한다”라고 답변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적극 용인할 것이며, 달러보다 가치가 빠르게 하락한 엔화 절상을 위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가 취임 이전부터 수출 부양을 위한 달러 약세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가파른 달러 약세가 환율을 끌어내린 가운데,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트럼프의 ‘25% 관세’ 발언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면서 환율 하락에 이바지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관세 압박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어 28일에는 “25% 관세를 언급했던니, 그들이 하겠다고 말하더라”라며 이번 ‘관세 카드’가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투자 등 관련 입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실속카드 수요 증가’… 신용카드 연회비 3년래 최저

작년 신규출시 신용카드 74종
연회비 평균 6만4836원 46% ↓

지난해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최근 3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여파로 실속형 생활비 카드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프리미엄 카드 비중을 늘리는 추세지만, 소비자들의 생활비 카드 선호 현상이 뚜렷한 만큼 당분간 ‘생활 밀착형 카드 출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전

망이다.

29일 국내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 74종의 연회비 평균은 6만48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46.2% 낮아졌다.

최근 3년 중 최저치다. 지난 2023년 6만9583원이었던 신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는 2024년 12만513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지난해 6만4836원으로 다시 급감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작년 하반기 3만원 미만의 연회비 카

드가 다수 출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됐던 연회비 1만~3만원 구간 신규카드는 상반기 10종, 하반기 29종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카드로 분류되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의 카드는 상반기 16종, 하반기 8종에 그쳤다.

이 같은 라인업 재편은 실속형 카드를 찾는 실제 시장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고물가 기조속 연회비 부담이 적은 카드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했다.

대표적으로 5만원 수준의 연회비를

선보이는 신한카드의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가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장보기 보너스, 온오프라인 쇼핑, 공과금, 음식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생활 가맹점에서 월 최대 10만원까지 할인되는 카드다.

2위에는 연회비 3만원 수준인 현대카드 ‘제로 업’ 카드가, 3위에는 연회비 2만원의 삼성카드 ‘아이디 셀렉트 올(iD SELECT ALL) 카드’가 순위에 올랐다. 낮은 연회비를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가 인기 순위 상위권에 다수 포진된 모습이다.

/안재선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간상승률 0.3% 넘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름폭도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주간매매가격 상승률은 0.3%를 넘어섰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의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1%로 지난주(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0.10%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 측은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11개구는 0.32% 올랐다. 자치구별로 관악구(0.55%)는 봉천·선림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44%)는 사당·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41%)는 신길·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은 0.3% 오르며 강남 못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0.24%)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성북구(0.42%)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1%)는 월계·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1%)는 상암·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에코프로그룹, 로봇·전고체 등 차세대 소재 포트폴리오 확장

인도네시아 수직계열화 체계 구축
삼원계·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대응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시장 정조준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수요 확대에 대비한 소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단기 실적 개선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에코프로그룹의 삼원계·하이니켈(NCM·NCA) 양극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용 배터리는 고에너지밀도와 출력 특성이 중요한 만큼 삼원계·하이니켈 양극재 채택 가능성이 크며,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진 에코프로의 사업 구조가 수요 변화와 맞물린다는 평가다.

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니켈 등 핵심 원료를 직접 조달하고,



충북 청주시 소재 에코프로 본사 전경.

이를 바탕으로 배터리용 전구체와 양극재까지 일괄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약 7000억원을 투입한 인도네시아 1단계 투자를 통해 현지 니켈 제련소 4곳의 지분 일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니켈과 코발트가 포함된 니켈 중간재(MHP)를 연간 2만8500톤 규모씩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투입 가능한 물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삼원계 양극재 원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구조도 확보했다.

니켈 수급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중장기 생산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배터리용 전구체를 제조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친환경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며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완하

고 있다.

차세대 기술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계획 중인 삼성SDI와 전고체 양극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전압 미드니켈(HVM) 양극재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고객사와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고망간 리치(LMR) 양극재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완성차 업체들과 개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LFP 양극재 역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000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확보한 뒤 북미 지역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이다.

유럽 시장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독일에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김벌 비르디(Kimbal Virdi) 이사를 법인장으로 임명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로 여내 조달 규제가 강화되면

서 완성차 업체들이 핵심 소재를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을 준공해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했으며, 현지 셀 메이커와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원료 확보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생산·판매 거점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투자 효과와 원가 구조 개선 성과가 반영되며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추가 개선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중요해 LFP보다는 삼원계·하이니켈 계열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에코프로는 로봇과 전기차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 전환 논의 속에서도 소재 공급사로써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 원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수주 경쟁력 높인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계획 구체화
창원 SMR 공장 등 설비투자 확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정부의 신규 원전 도입 재추진에 따라 국내에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아우르는 원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국내 대형 원전 사업 재개를 계기로 유럽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원전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2015년

수립된 제7차 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국내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을 보유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대형 원전 건설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해외 원전 프로젝트 위주로 이어지던 수주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전 2기 건설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물량이 더해지며 해외 사업과 병행되는 구조가 자리 잡아 주기기 제작 물량의 안정성과 원전 포트폴리오의 지속성이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추진해 온 설비 투자 전략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 구축을 추진 중으로, 2031년 6월까지 약 8068억원을 투입해 연간 20기 이

상의 SMR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설치만 진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건설 비중보다 제조 비중이 높아 주기기 제작 역량을 보유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대형 원전 중심의 전원 구조로 SMR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해외에서도 원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고려한 전원 믹스 재편이 이어지면서 원전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역시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3년 신규 수주 7조1000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14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해외 대형 원전과 SMR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 수주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원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해외 수주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국내 대형 원전과 해외 원전, SMR 사업이 병행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원전 사업 운영 환경도 한층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1.3조 특별배당

삼성전자가 특별배당을 실시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원씩 매년 총 9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4분기 1조3000억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 배당은 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를 넘어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기아, 주행안전기술 ‘비전 펄스’ 공개

UWB 전파로 차량 주변 장애물 파악

현대자동차·기아가 주행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해 운전을 보조하는 첨단 센싱 기술 ‘비전 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술은 차량에 적용된 UWB 모듈이 전파를 발산하고,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등에도 UWB 신호를 포착한다. 상대방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경고를 해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원리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지 교차로 등에서 반경 100m 범위에서 10cm 오차 범위 내로 파악할 수 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



현대차 기아가 선보인 비전 펄스 작동 그래픽.

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한다.

비전 펄스는 지게차 등 산업 현장에 적용하면 작업자와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재해 상황에서 실종자의 위치를 구조 요원에게 정확히 알려줄 수도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비전 펄스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기아의 철학이 담긴 기술”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하이버스,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시간당 320kg 액화수소 충전 가능

SK이노베이션 E&S 자회사인 하이버스가 인천국제공항 내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준공하며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이번 복합기지는 공항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버스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서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43억원이 투입됐으며 국토교통부 지원금 70억원, 인천시 투자금 30억원, 하이버스 투자금 43억원으로 조성됐다. 하이버스는 현재 전국



하이버스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SK이노베이션 E&S

21개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고지 내 2771㎡ 부지에 구축됐다. 시간당 320kg 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충전소로, 하루 최대 240대의 대형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1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LG전자가 창사 이후 첫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LG전자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로 밝혔다. 매입 물량은 이사회 전날인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통주 90만 5083주 및 우선주 18만 9371주 상당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은 지난해 말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발표한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 주주환원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LG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쿠팡 사태’ 소상공인 신고 미지근… 피해 접수 약150건 그쳐

〈29일 현재〉

중기부, 소상공인聯과 신고센터 운영 2월 말까지 접수… 지원책 검토 소공연 “실질적 손실 보상” 촉구 한상총연 “아이템 워너 폐기” 요청

소상공인들이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이 20일을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150여 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을 통해 쿠팡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총 매출중 쿠팡(쿠팡이츠) 매출 비중 ▲쿠팡을 제외한 입점 온라인 플랫폼 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적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 상황에는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2월 말까지 받는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코너에 하면 된다.

앞서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팔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쿠팡 측에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플랫폼 갑질 및 수수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 의 고향을 짜내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혁신의 가면을 쓰고 ‘아이템 워너’, ‘PB 상품 우대’, ‘가격 압박’ 등 악랄적 영업을 일삼는 쿠팡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측에 공정거래 이슈에 휩싸인 ‘아이템 워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향해선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이 도입하고 있는 아이템 워너는 최저가나 평가가 좋은 판매자를 대표로 노출하고 사진·리뷰를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

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납이 정성을 다해 관리한 상품 소개와 리뷰를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쿠팡은 즉시 판매자별로 리뷰를 분리하고 위조품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과거의 부실 조사를 반성하고 워너 제도가 어떻게 짝퉁 유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자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중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출판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쿠팡이 주로 ▲성장장려금·광고비 인상 ▲공급물(소매가격 대비 납품원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78곳으로 확대

전문가 통해 채무조정 등 종합상담 지원
李차관 “재기 디딤돌 역할, 운영 내실화”
고환율 대응, 정책자금 만기연장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기존 30곳에서 78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기부는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개소식을 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센터에선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진행,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상공인이 복잡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면서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1400원대 고환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 수입 비용 증가, 물류 및 보험비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상환여력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의 정책자금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한다.

수출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환리스크 상담·교육’ 대상을 수출 중소기업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연 1000건의 ‘납품대금 연동망 정 컨설팅’으로 수입 원자재의 환동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동 약정 체결 문화에 앞장선다.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에서 현장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처로 전달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

/김승호 기자

모델솔루션, 의료기기 토털 솔루션 공개

‘MD&M West 2026’ 참가
진단·당뇨 관리 기기 등 전시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이 내달 3일부터 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미국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컬 디자인&매뉴팩처링 웨스트 2026(MD&M West)’에 참가한다고 29일 밝혔다.

MD&M 웨스트는 의료기기 설계·제조·엔지니어링 전반을 아우르는 북미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메드테크(MedTech) 기업과 의료기기 제조·공급망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에서 모델솔루션은 디자인과 정밀 제조 기술을 결합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품 기획부터 개발·생산 및 양산까지 아우르는 ‘의료기기 토털 하드

웨어 솔루션 역량’을 소개한다.

아울러 모델솔루션이 개발에 참여해 현재 핵심부품을 공급 중인 ▲진단·분석용 의료기기 ▲유전자 치료 관련 의료기기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 등을 전시한다.

유형민 모델솔루션 대표는 “모델솔루션은 디자인부터 프로토타입, 양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제조 솔루션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고객들의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中소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 4만명 목표

중기부·중진공, 4대협약銀과 협의회 재직자 신청방법 개선 등 활성화 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4개 협약은행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았다.

중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기부와 협약은행인 I 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과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그리고 4개 협약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참여 기관들은 올해 저축공제 공

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하고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저축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약 3980만원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기술탈취 분쟁 ‘K-디스커버리’ 도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문가 조사·법정의 당사자 신문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시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돕는 ‘K-디스커버리’ 도입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사실 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이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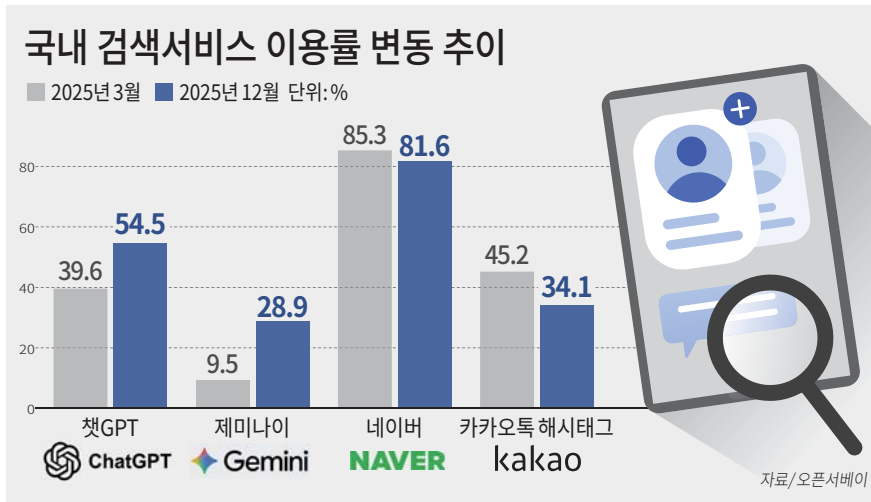
키워드 대신 문장으로 질문한다 생성형 AI로 검색시장 지각변동

기본도구로 AI 사용 비율 늘어
광고·불필요 정보 없어 효율적
네이버·구글, AI 도입으로 대응

“요즘은 네이버로 검색 안 해요.”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 사이에서는 정보가 필요할 때 검색창보다 ‘챗GPT’를 먼저 떠올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질문을 키워드로 쪼개 입력하기보다, 문장 그대로 던지고 답을 받는 방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생성형 AI가 일상 속 정보 탐색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색 행태 자체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9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 도구를 일상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체험을 넘어 업무와 학습 과정 전반에서 AI를 기본 도구로 사용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가 전통 검색 플랫폼 중심의 정보 소비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변화가 두드러지는 영역은 검색이다. 과거에는 키워드를 입력해 다수



의 링크를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이제는 질문을 문장으로 던지고 요약된 답변을 받는 방식이 익숙해졌다. 이용자들은 “광고와 불필요한 정보가 섞이지 않아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변화는 네이버와 구글 등 기존 검색 플랫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랫폼 체류 시간과 검색 쿼리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색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접목한 요약형 검색과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잇달아 도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보 신뢰도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와 어긋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I 검색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검증은 기존 검색이나 공식 자료로 진행하는 이중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검색은 링크를 찾는 행위가 아니라, 답을 받는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AI가 검색의 문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과기부, ‘양자기술 5개년 계획’ 가동

양자컴퓨터 핵심기술 자립화 도모
2035년까지 인력 1만명 확보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5개년 계획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킴칩 제조국 달성, 양자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양자와 AI를 결합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그랜드챌린지를 추진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도모한다. 양자통신과 센서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국방과 금융 등 보안 수요가 높은 영역부터 실증을 확대한다. 인재와 연구 기

반 측면에서는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2035년까지 양자 분야 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한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해 2000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글로벌 표준 채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하반기 최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세계적인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의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와 연계한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제조, 통신, 금융, 방산, 바이오, 시스템통합(SI) 등 주요 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김서현 기자 seoh@

잡코리아, ‘웍스피어’로 사명 교체

‘AI 커리어 에이전트’ 도약 의지

잡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명을 ‘웍스피어(WorkspHERE)’로 전격 교체하고, 인공지능(AI) 중심의 플랫폼 전환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넘어, 데이터와 맥락을 기반으로 개인의 커리어 여정 전반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AI 커리어 에이전트’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웍스피어는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잡코리아 더 리부트’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명과 중장기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윤현준 웍스피어 대표(사진)는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방대한 채용 데이터와 자체 고도화한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AI가 일상이 된 현시점에서 단순히 공고를 많이 보여주는 방식만으로는 구직자와 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음 선택을 선



제적으로 제안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 기술 개념으로 제시된 ‘컨텍스트 링크

(맥락 연결)’는 웍스피어가 지향하는 기술적 우위를 잘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단순한 이력과 역량 정보를 넘어 관심사, 행동 데이터 등 복합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사람과 일, 정보와 기회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공개된 AI 커리어 에이전트 2종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순차 론칭 예정인 인사 담당자용 ‘탈런트 에이전트’는 필요한 인재상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내부 및 외부 인재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 기반 대화형 서비스다. 구직자용 ‘커리어 에이전트’ 역시 지원 이력과 활동 패턴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춤형 기회를 제시하며 기존의 획일적인 공고 노출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김서현 기자

넥슨,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전액환불’ 결정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키우기’
지난해 11월 6일부터 결제상품 환불
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 신고 취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넥슨이 초유의 전액 환불 조치를 단행하며 이용자 여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넥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제기했던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신고를 취하했다.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논란이 불거진 이후 넥슨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액 환불 방침을 밝혔다.

넥슨은 “게임 플레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확인했음에도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수정한 큰 잘못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원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지했다.

환불 대상은 메이플 키우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전액 환불 공지 게시 시점인 28일까지 결제한 모든 상품이다. 넥슨은 기존에 약속한 인게임 아이템 등 개별 보상 역시 그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전액 환불 결정에 따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날 공정위에 제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접수한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메이플 키우기의 일부 성장 요소와 아이템 획득 구조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음에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넥슨이 이용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함으로

써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비자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된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속한 대응 준비가 있었으나, 넥슨의 자발적인 전액 환불 결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가 완료됐다고 판단해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메이플 키우기에서 유료 재화를 사용해 캐릭터 능력치를 무작위로 재설정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넥슨이 한 달 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2일 담당 부서는 확률 범위가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설정된 코드상 오류를 발견하고, 이용자 공지 없이 수정 패치를 진행했다. 넥슨은 지난 25일 예야 해당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최빛나 기자

SKB, 공유기 속도 높이고 요금부담 낮춘다

‘기가 와이파이7’ 공유기 선행

SK브로드밴드는 기존 대비 속도를 높이고 주거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기가 와이파이7’ 공유기를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AI 서비스, 4K·8K 스트리밍, 고사양 게임 등 대용량 데이터 이용 증가로 안정적인 무선 환경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공유기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하려는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기가 와이파이7’은 기존 와이파이6 대비 두 배 빠른 최대 2.88Gbps(5GHz 기준)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대 2.5Gbps 유선 속도도 지원해 기가 인터넷 이상의 대역폭을 무선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 모델이 ‘기가 와이파이7’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SKB

요금 부담도 낮췄다. 기존 와이파이 통합 상품 이용 고객은 월 1100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쿠키런 킹덤’ 출시 5주년 대규모 페스티벌

전년비 행사 규모 5배 이상 확대

‘쿠키런 킹덤’이 출시 5주년을 맞아 전년 대비 5배 규모의 오프라인 팬 페스티벌을 열며 주말 킨텍스를 뜨겁게 달군다. 29일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출시 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오프라인 팬 페스티벌 운명의 집결을 이번 주말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행사 규모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했다.

이번 팬 페스티벌은 게임 세계관을 오프라인 공간으로 구현한 체험형 행사로 구성했다. 캐릭터 전시와 무대 이벤

트,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팬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특히 주요 업데이트 방향과 향후 서비스 계획을 공유하는 무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한정 굿즈와 이벤트 보상도 제공한다.

쿠키런 킹덤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 중심의 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빛나 기자

“한국판 애플·MS 나올 수 있는 세제혜택·정책금융 지원을”

W 천스닥

④ 한국판 엔비디아의 조건

자본 공급·신산업 성장 지원 필요
‘성장 선별’ 시장으로 체질 개선해야
중기 육성·내수 확대는 생존 전략

“미국 주식 하려고 작년 말에 오래 보유하던 코스닥 종목들 전부 손절했는데, (팔고 나니) 계속 오르네요.”(40대 회사원 이모씨)

“금리 안 내리고 환율도 오른다고 해서 급락할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날아 오르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개인 투자자 김모씨)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던가. 4년 만에 다시 ‘천스닥’(코스닥 1000)에 오른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 관심도 한층 커졌다. 이달 들어 코스닥 시장에 뭉치돈이 몰리며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4조5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 7조5000억원을 두 배 가량 웃돈다. 하지만 코스피 거래 대금(평균 26조5000억원)의 55%에 그친다. 작년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평균 60.8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주가 부양에 주력하는 정부가 모험 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부흥 작업에 착수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불러모으고, 해외 증시에 있는 개미(개



ChatGPT로 생성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는 코스닥 시장’ 이미지.

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려면 코스닥 기업들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래야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짝효과 그친 정부 정책

정부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선순환 4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코스피 랠리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재설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스닥을 버티는 시장이 아닌, 성장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월 중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에 주는 믿음은 여전히 약하다. 이달 들어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6조9000억원 어치를 팔았다. 외국인도 매도 우위다.

시장이 특정 업종에 치우친 편중성, 그로 인한 높은 변동성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

지 등을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과거에도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주가 부양 효과는 길어 봐야 1년에 못 미치는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통합 거래소를 출범했다. 무분별한 벤처 인증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재정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조성해 돈을 공급했다. 그러나 오히려 코스피보다 ‘하위 호환’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며 우량주가 이탈했다. 코스닥 지수는 2005년 한 해 100% 올랐다가 이듬해 40% 고꾸라졌다.

‘창조 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으로 상장 문턱을 낮춘 코넥스시장 개장, 충분한 매출 없이도 기술력을 보고 상장시켜 주는 ‘기술 특례’ 제도도 처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도입해 이익 못 내는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보고 상장 특례를 허용해줬다. ‘코스닥 벤처펀드’도 도입해 투자금 3000만원 한도까지 10%를 소득공제해줬다. 절세를 노린 부자

들의 돈이 몰려들었지만, 자금이 주식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쏠렸다.

◆지수보다 기업, 밸리보다 생태계

한국판 엔비디아·애플·MS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체력(실적)을 키울 근본적인 처방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외국인도 투자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닥 정책 효과는 단순한 규제 정비나 시장 안정 중심 정책보다는, 정책 자금 유입과 특정 성장 산업 육성을 동반한 경우에 시가총액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특히 자본 공급과 신산업 성장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 때 코스닥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과 가장 유사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사례는 2017년이다. 당시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세제 혜택 확대와 정책 금융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코스닥 시가총액은 64%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도 2017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가정 하에,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2025년 12월 기준 약 500조원에서 중기적으로 820조원대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 기반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국내 최초 디지털채권 1000억 조달

글로벌 수준 디지털 금융 표준 도입
전과정 자동화… 금융시스템 효율 ↑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디지털 채권은 홍콩 달러(HKD) 3억2500만 달러와 미국 달러(USD) 3000만 달러로 동시 발행됐다.

주간사는 HSBC, 보조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인 담당했으며, 초기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모(Private Placement) 모집 방식을 채택했다. 발행 과정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 공식 채권결제 인프라인 CMU(Central Moneymarkets Unit)와 연계된 HSBC 자체 토큰화 플랫폼 ‘오라이언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Orion)’이 활용됐다. 이는 홍콩 정부의 디지털 그린 본드와 동일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설계된 블록체인 인프라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 표준을 국내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다.

디지털 채권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DLT)을 활용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다.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발행, 이차지급, 상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성공 사례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경 없는 자본 조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중통화 동시 조달을 통해 환전 비용과 결제 시차를 제거한 것 역시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무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본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고 미래에셋증권은 부연했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고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미래에셋 3.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은 대한민국 금융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라며 “확장된 금융 생태계를 통해 개인 투자자부터 기관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선정

신한은행·KB국민은행·KB손해보험·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4개 금융사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7호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은행 부문에서는 신한은행의 ‘뽕겨요 이차보전 대출’과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중 금리 인하’가 선정됐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신규 금리를 최대 3.5%포인트 인하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 보험’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효율과 판매 실적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 3곳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금감원장 포상을 수여했다.

/허정윤 기자

하나증권, 데이터젠과 한돈 투자증권 공모

제1호 가축투자계약증권 추진

하나증권은 핀테크 기업인 데이터젠과 함께 국산 돼지(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축투자계약증권 제1호’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매

일부터 사육, 출하, 매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공동사업으로 구성한 실물자산 기반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는 증권 보유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고 손익을 배분받는다.

총 모집금액은 2억1624만원이다. 단위당 모집금액은 2만원, 모집 수량은 1

만812주다.

하나증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젠과 함께 상품 구조 설계부터 공모, 청약 및 자금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돈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반에 대한 자문과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의 수익 배분 구조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 한돈이라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계약증권으로 구현했다”고 전했다.

양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한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운영·정산 전 과정을 제도권 내에서 실행하고, 향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행해 공모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 구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권 형태로의 확장이 가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年 어가소득 8000만원·귀어 2000명 목표”

해수부 수산·어촌발전 기본계획
고부가가치 어종 스마트양식 재편
빈집 리모델링 등 초기 정착 지원

정부가 5년 내 어가 연평균소득을 8000만 원대, 귀어·귀촌 인구를 연간 2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양식 체계를 고부가가치 어종 위주의 스마트 양식으로 재편하고, 청년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t) ▲어가소득 8000만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수산식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다. 1억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원까지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방침이다.

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수산물 생산통계 정비를 위해 위판

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제고한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자분산물류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할 계획이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굴 최대 수입·소비 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 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 해제를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를 통해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바다 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 어항 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고용부

건설업 고용 줄고 보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6% 증가

지난해 국내 전(全) 산업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2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676만6000명으로 2만7000명(-0.2%)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348만6000명으로 2만9000명(0.8%) 늘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중소기업체 고용 위축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보다 8만6000명(3.6%)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563개 제품 ‘부적합’

정부가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63개를 확인하고 국내시장 유통을 차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제품 2025년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유통사의 3876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식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K-푸드 수출 다변화 위해 할랄인증 지원”

재경부-한은, 국민·농협·신한 등
외환건전성 부담금 최대 60% 감면

올해의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총 7곳이 지정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organChase)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9일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이들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외되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새로 포함됐다.

선도은행 제도는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에 도입됐다.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

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선도은행으로 뽑히려면 ▲재무건전성(BIS 총자본비율 8% 이상) 및 신용도(A- 이상) 양호 ▲최근 3년간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 이상 제재 없음 ▲원·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평가는 ▲원·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15%) ▲원·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45%) ▲원·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40%)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 체결된 거래에 주간 시간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미령 농식품장관 두바이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품목 중 하나로 할랄식품을 꼽았다. 또 K-컬처 등과 연계한 K-푸드 마케팅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UAE 정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 R&D(연구·개발), K-할랄식품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할랄식품 소비 인구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랄인증 한우, 딸기·포도 등의 프리미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지원,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안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UAE 기후변화환경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UAE 기후변화환경부의 안나 빈트 압둘라 알 다하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식량안보 목적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 재체결을 제안했다. 또 양국의 농업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유전자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부발전, 美 350MW ‘루시 태양광’ 착공

35년간 전력 생산·판매

한국중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350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중부발전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콘초 카운티에서 ‘루시(Lucy)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엘라라(130MW), 콘초밸리(160MW)에 이은 중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다.

루시 태양광 발전소는 총 350MW 규모로, 2027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준공 이후 35년간 전력을 생산·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가운데)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루시 태양광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판매할 예정이며, 연간 약 926GWh의 청정 전력을 생산해 약 2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기업 간 자원순환 돕는다

컨소시엄 최대 20억까지 지원

한 기업이 공정에서 쓰고 남긴 폐열과 부산물이 다른 기업의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되는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생태산업개발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41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과제당 평균 8억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부산물 등을 다른 기업의 공정에 연료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업 간 연계 모델을 발굴·확산을 목표로 한다.

컨소시엄은 ▲공정 부산물·폐열을 공급하는 기업 ▲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재자원화 자원을 활용하는 수요기업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 중 1개 이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설비 기업과 온실가스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익명제보가 접수될 경우, 피제보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보를 계기로 한 조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방식을 이처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GEL PEN

ccc6b8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지역의사제’ 지정 일반고 1112곳… 부울경 282곳 ‘최다’

2027 대입, 32개 의대전형 도입 추진
중·고교 이력으로 지원자격 부여
경인 118곳… 남양주 20곳 지정
비평준화·농어촌 학교 비중 높아
“중2·중3부터 고교 선택 고민 ↑”

지역의사제 지정 일반고가 전국 1112개교로 집계된 가운데, 지정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가까운 경기·인천·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남양주와 인천, 천안·아산 등을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향후 중학생 단계부터 고교 선택과 지역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9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 일반고는 전국 1112개교로, 이 가운데 부울경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 230개교 ▲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경기·인천권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권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시스

전체로 보면 994개교가 지정돼 사실상 대부분의 일반고가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해당 의대가 위치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한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

비 등이 지원되며,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전형 구조 속에서 지역별 지정 학교 분포에 따른 수험생 이동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경인권의 경우 전체 일반고 480개교 가운데 118개교가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이다. 경기 86개교, 인천 32개교로 구성

됐으며, 경기 남양주권이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권 25개교 ▲인천 서북권 19개교 순이었다.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남양주시가 20개교로 가장 많았다.

지정 학교의 유형을 보면 비평준화 고교와 농어촌 대상 학교 비중이 높았다. 경인권 지정 학교 118개교 중 86개교(72.9%)가 비평준화 고교였고, 48개교(40.7%)는 농어촌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 지방권에서도 지정 학교 994개교 중 472개교(47.5%)가 비평준화 고교, 356개교(35.8%)가 농어촌 대상 학교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역시 주목 대상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아 실제 지원자와 이동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천안과 아산, 남양주, 부산 일부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집중돼 있어 향후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자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인권에는 성균관대 의대를 비롯해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등 최상위권 의대가 밀집해 있어 지역의사제 전형

이 본격화할 경우 해당 권역에 대한 수험생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지정 고교를 중심으로 진학 이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증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이어질 경우, 현재 중2·중3 학생을 중심으로 고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 선택 단계부터 향후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의사제 지정 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 농어촌 전형 등이 중첩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학교와 지역에서는 의대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권 학생들 역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경인권이나 충청권 등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실제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

경기평택항만공사, 95만6천TEU 기록
중 비중 82%로 대중국 무역 거점 입증
해외 마케팅 성과, 2026년 세일즈 확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 김금규)는 2025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95만6,031TEU를 기록하며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은 국내 4위 국제무역항으로,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2024년 92만4,758TEU에서 2025년 95만6,031TEU로 3.4% 증가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같은 기간 부산항은 2.0%, 광양항은 2.4%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73.2%, 울산항은 13.4%를 기록해 국내 5대 항만 가운데 평택항의 성장세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78만6,921TEU로 전체의



평택항 전경.

82.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베트남 6만9,008TEU(7.2%), 필리핀 5만5,419TEU(5.8%), 태국 1만6,834TEU(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평택항이 대중국 무역의 핵심 거점 항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5년 스

페인 바르셀로나 포트세일즈를 시작으로 중국 양포항 경제개발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평택항 설명회 개최, 네덜란드 TOCEU ROPE 참가, 중국 칭다오·웨이하이 포트세일즈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세일즈 활동 영역을 확대해 왔다.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내외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항 물동량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2026년에도 물동량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6년 3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MIPIM 2026’에 참가해 평택항 홍보와 투자유치 등 지속적인 글로벌 세일즈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 일자리센터 통해 2207명 취업 연계

경기 둔화 속 ‘맞춤 고용지원’ 성과
고용 분야 정부합동평가 S등급

파주시가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둔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취업률 제고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총 2,207명의 구직자를 일자리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구직자 특성과 기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상담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인정받아 파주시는 고용 분야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

대규모 채용 연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3일 금촌다

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파주시 더 큰 채용박람회’에는 35개 구인업체와 1,051명의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20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장 취업률은 68.4%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운영된 소규모 채용 프로그램도 안정적인 고용 성과를 뒷받침했다. 연 4회 개최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44개 업체와 588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212명이 취업했으며, 상설·동행 면접 47회를 통해서도 187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인공지능 기반 모의면접 프로그램에는 175명이 참여했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11회 운영해 222명이 상담을 받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최대 7.2% 인상

1인가구 41만원·4인가구 103만원
청년 소득공제 34세까지, 60만원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올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7.2% 인상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업용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차량 재산 기준도 완화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 올라 기존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인상됐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6.5% 올라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상향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가 정기 지급된다.

/이현진 기자

고양,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3차 확대 추진

3차는 중견기업 본사 유치 초점
제조본부 등 6개 업종 추가 허용

고양시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3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고양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중점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아 핵심 기업 유치 시설로 육성해 왔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한 데 이

어, 2025년 2월 2차 입주업종 확대를 단행했다. 그 결과 공실률이 높았던 덕은·항동지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점차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3차 확대는 고양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초점을 맞췄다.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추가로 허용된 입주 업종은 모두 6개로, 제조업 회사본부와 기타 산업 회사 본부 가운데 중견기업 이상 본사를 비롯해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고교 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아이 성장 책임지는 먹거리… 이유식도 간식도 프리미엄

‘에코붐 세대’ 출산율 반등

국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영유아 소비 시장에 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0.9명 수준으로의 단기적 회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인구 반등의 ‘골든 타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베이비본죽 초세분화 전략 맞춤형 정기 구독 서비스 운영

엘빈즈 성장기 영양 밸런스 강조 루솔 유기농 등 원재료 경쟁력 ↑

아이얌 핑거푸드 간식 저변 넓혀 클레 이유식 카페 오프라인 경험

저출산 기조에도 자녀 1인에게 지출이 집중되는 ‘골드키즈’, 이모·삼촌·고모·친척 외에 부모의 지인까지 자녀 소비에 참여하는 ‘텐포켓(10 pocket)’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키즈 관련 소비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식품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유아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아이의 성장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격이나 편의성보다 월령별 영양 설계, 원재료 신뢰도, 서비스 완성도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부모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국내 키즈 식자재 시장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6% 성장한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 성장 맞춤 이유식 고도화

순수본의 프리미엄 영유아식 브랜드 ‘베이비본죽’은 업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초세분화 전략으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유식 준비기(4~5개월)부터 완료가(12개월 이후)까지 월령별 식단을 운영하고, 미각 발달이 중요한 중기 구간을 6~7개월, 7~8개월로 세분화하는 등 성장 단계에 맞춤 맞춤 설계가 특징이다.

2018년 론칭 당시 약 160종이던 메뉴는 현재 600종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하루 최대 200종 수준의 이유식을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이유식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8단계로, 이유식 이후 유아식은 10단계까지 확장해 아이의 성장 속도와 기호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철분 섭취를 고려한 붉은 한우 토핑 등 기능성 요소도 강화했다.

맞춤형 정기 구독 서비스 ‘식단플래



아이얌 한입씩 볼과자.

일동후디스

너’ 역시 핵심 서비스다. 아이 월령과 단계에 맞춤 식단 설계는 물론, 배송 일정과 메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변화가 잦은 육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문 즉시 생산해 익일 새벽 배송하는 오투메이드 시스템으로 신선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 단백질·영양 밸런스를 전면에

영양 설계를 전면에 내세운 브랜드들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에이치비에프앤비의 ‘엘빈즈’는 프리미엄 단백질 이유식 ‘슈퍼핏 이유식’을 통해 성장기 영양 밸런스를 강조하고 있다. 동·식물성 단백질을 6:4 비율로 설계해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구성을 고려했으며, 중기 제품 선출시 이후 후기·완료가까지 라인업을 확대했다. 사전예약 판매만으로 1만 팩 이상이 판매되며 소비자 반응을 입증했다.

푸드솔루션 브랜드 루솔 역시 프리미엄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출시한 ‘루솔 베이비 더 프라임’은 유기농 쌀과 무항생제 한우 등 원재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백질 함량을 기존 대비 15~16% 높여 면역력과 성장 니즈를 동시에 겨냥했다. 준비기부터 완료가까지 5단계, 77종으로 구성된 체계적 식단을 통해 성장 단계별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 이유식 이후까지 확장

일동후디스의 유아식 브랜드 ‘아이얌’은 핑거푸드 간식 ‘한입씩 볼과자’를 출시하며 간식 시장까지 저변을 넓혔다. 퀴노아·렌틸콩 등 영양 원물을 간식 형태로 구현해 섭취 거부감을 낮추고, 철분·칼슘·비타민D 등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았다.

푸드케어 ‘클레’는 오프라인 경험을 결합한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



베이비본죽 실온이유식.

/베이비본죽

다. 국내 최초 유리병 이유식, 당일 생산·출고 원칙으로 안전성과 신선함을 강조해온 데 이어, ‘이유식카페’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바로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환경과 아기 전용 편의 시설을 갖춰 ‘내 아이에게만 주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VIB 소비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의 출산이 본격화되면서 영유아 식품 시장이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월령 세분화, 영양 설계, 구독·배송, 오프라인 경험까지 결합한 통합 솔루션이 향후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지난해 美 케이터링 매출 30% ↑

북미 전 매장에서 케이터링 체계 구축 美 소비자 맞춤 현지화 전략 성과 핑거푸드·디저트 등 라인업 지속 확대

파리바게뜨의 미국 시장 케이터링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현지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20년부터 미국에서 기업 행사·소규모 파티 등 다양한 모임을 대상으로 맞춤형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북미 지역 전 매장에서 케이터링 주문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고객은 케이터링 주문을 통해 페이스트리·크루아상·도넛 등 단체로 즐기기는 좋은 베이커리류는 물론, 샌드위치와 과일, 샐러드 등 간단한 식사 메뉴와 커피 및 음료, 케이크까지 행사 성격과 규모에 맞춰 다양한 메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는 2025년 8월 온라인 케이터링 주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이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 고객은 메뉴



2025년 파리바게뜨 미국 케이터링 매출은 매월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대비 약 30%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SPC

구성부터 수량 선택, 픽업 일정까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고 이는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5년 파리바게뜨 미국 케이터링 매출은 매월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대비 약 30%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케이터링 매출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고, 샌프란시스코가 17%로 뒤를 이었다. 케이터링 매출 상위 3개 매장 역시 모두 뉴욕주에 위치한 가맹점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미국 소비자

의 라이프스타일과 식문화에 맞춤 현지화 전략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 행사, 자선 이벤트, 결혼식, 학교 및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러한 시장 특성에 주목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간편하게 나눠 즐길 수 있는 메뉴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실제로 ‘미니 크루아상 샌드위치’, ‘미니 어썸티드 페이스트리’ 등 핑거푸드 형태의 메뉴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업 미팅이나 행사 현장에서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조각 케이크, 마카롱 등 디저트 메뉴를 추가로 선보이며 케이터링 전용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케이터링 서비스는 미국 시장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다. 온라인 주문 플랫폼 고도화와 메뉴 다각화를 통해 기업·단체 고객 대상 케이터링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GS25, 지난해 外人 결제액 74.2% ‘썸뽕’ (전년비)

中 연휴 때 매출 집중 경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2025년 외국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74.2%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9일 밝혔다.

여행 전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치인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GS25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

나며 한중 관계 개선과 K-컬처의 확산으로 방한 수요가 늘면서 편의점 매출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제 수단별로는 모바일 간편결제 점유율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결제 비중은 전체의 97.7%에 달했다.

시기별로는 중국의 주요 연휴인 춘절(2월), 노동절(5월), 여름방학(7~8월), 국경절(10월)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건강관리 열풍 ‘비비고 생선구이’ 흥행

CJ제일제당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생선구이’가 헬스앤웰니스 트렌드와 맞물려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사진)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약 10만 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집에서 생선을 직접 구워 먹기 번거로운 불편을 줄이고, 건강과 식단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스앤웰니스 트렌드까지 적극 반영한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선보인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연어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리면서 허브와 흑후추를 더해 비린맛을 낮춘 제품이다. 트레이에 담겨있어 별도의



손질이나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약 1분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단백질 11g과 오메가3 지방산(EPA, DHA)을 함유해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단백 제품으로 설계된 점도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는 오는 2월부터 판매 채널을 본격 확대한다. 그동안 CJ더마켓 등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할인점과 슈퍼 등 오프라인에서도 순차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썸7클럽 회원, 70% 더 샀다”

신규 멤버십 회원 주문 데이터 분석

SSG닷컴의 신규 멤버십 ‘썸7클럽’ 가입자들이 일반 고객보다 한 번에 더 많이, 더 자주 장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이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썸7클럽’ 회원의 장보기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객단가가 멤버십 미가입 회원보다 70% 높았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주문 횟수 또한 일반 회원 대비

4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분석 기간 동안 썸7클럽 가입 고객 중 장보기 상품을 1회 이상 구매한 고객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SSG닷컴 측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썸배송 상품 구매 시 결제액의 7%를 적립해 주는 강력한 혜택이 이마트의 상품 경쟁력과 맞물려 구매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손종욱 기자

설 대목 잡기 나선 유통가, 멤버십·무료배송 등 ‘혜택 팍팍’

현대免, 럭셔리 브랜드 대폭 할인
롯데百貨, 우량고객 온라인까지 혜택
이마트, 가성비 높은 제품 실적 견인

유통업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차별화된 멤버십 혜택과 타깃별 맞춤 프로모션, 배송 경쟁력 강화 등 입체적인 전략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엔데믹 이후 늘어난 여행객부터 고물가 속 실속을 챙기려는 장보기 고객까지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다.

현대면세점은 설 연휴와 중국 춘절이 겹치는 2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외국인 고객을 겨냥해 다음 달 22일까지 ‘현대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하며, 내국인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공항점 역시 선글라스와 주얼리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는 등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백화점은 큰손 고객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명절 기간 100만원



현대면세점은 2월 설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겨냥해 ‘현대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면세점

이상 구매하는 우량 고객을 위한 ‘롯데ギフト클럽’ 멤버십을 통해 매출 신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추석 처음 선보인 이 멤버십은 가입 고객 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으며, 우량 고객의 매출 기여도가 60%를 넘어서는 등 확실한 락인(Lock-in) 효과를 입증했다. 올 설에는 혜택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장해 백화점 물에서 구매 시 8% 엘포인트 적립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와인들을 활용한 고가 선물세트 구성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엄선한 생산자와 빈티지를 고려해 음용

적기에 접어든 와인을 제안한다. 대표 상품으로 ‘팔머 샴페인 99와 00’이 각각 70만원, 스페인의 대표 와인 ‘베가 시실리아 우니코 03 매그넘’이 380만원, 이탈리아 와인인 ‘비온디 산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99’를 480만원에 선보인다.

외국인 관광객과 상생 소비를 겨냥한 마케팅도 눈에 띈다. 롯데마트는 2월 춘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K-푸드와 기념품 구색을 강화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아몬드 초코볼 액막이 기화’와 자



롯데면세점은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설 명절 고객들을 잡는데 나선다. /롯데면세점

개 디자인을 적용한 생활용품 세트 등을 선보이며 외국인들의 지갑을 연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온누리상생스토어’ 이벤트를 마련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자동 응

모 이벤트와 함께, 설 성수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고객들이 가치 소비와 실속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고물가 시대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송 경쟁도 치열하다. 홈플러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무료배송 이벤트’ 승부수를 띄웠다. 대형마트 ‘매직배송’과 익스프레스 ‘매직나우’ 이용 시 2만원 이상만 구매하면 배송비를 면제해 준다. 실제로 이달 초 진행한 무료배송 행사 기간 동안 소량 구매를 선호하는 2030세대 신규 고객이 22%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마트는 ‘구성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사전예약 중간 집계 결과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고가의 한우 대신 ‘얼룩돼지’, ‘항공직송 돈육’ 등 특이 품종 돼지고기 세트 매출이 59% 늘어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과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과, 배, 만감류 등을 섞은 ‘혼합 세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성비를 높인 차별화 상품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바사 ‘범용백신’ 임상 개시

(코로나 계열)

GBP511 글로벌 임상 1/2상
같은 유형 중 임상 단계 첫 진입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표적 범용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베코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다양한 변이주는 물론 동물에서 유래해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사스(SARS) 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갖춘 범용백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GBP511 글로벌 임상 1/2상은 호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368명을 대

상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면역증강제 유무에 따라 저·중·고용량 시험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최근 변이주를 포함한 mRNA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안전성·내약성·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용량과 투약 조건을 확정해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성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각 단계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사베코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한 교차 면역반응을 확인해 범용 백신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번 글로벌 임상 진입은 해당 유형의 백신 가운데 최초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로, 경쟁사 대비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엘레바 테라퓨틱스, 김동건 신임 대표 선임

간암·담관암 치료제 후속단계 집중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대표이사 변경을 단행해 김동건 HLB US법인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간암 및 담관암 치료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신청(NDA)을 마무리한 후 허가 심사, 상업화 등 후속 단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새롭게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이끌게 된 김동건 대표는 그동안 HLB US법인



장으로서는 엘레바를 포함한 미국 내 계열사 전반에서 조직 운영, 재무 전략, 파이낸싱, 기술이전 및 사업개발 등을 총괄해 왔다.

특히 김 신임 대표는 상업화 초기 준비 단계부터 엘레바를 실질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간암 신약 후보 리보세라닙, 담관암 신약 후보 리라푸그라티닙 등 2개 항암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G마켓 빅세일 모델에 H.O.T.

G마켓이 그룹 H.O.T.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하는 ‘2026 설 빅세일’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는 데뷔 30주년을 맞은 문희준, 장우혁, 토니 안, 강타, 이재원 등 멤버 5인이 전원 출연한다. H.O.T.가 5인 완전체로 상업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무려 25년 만이다.

지난 28일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된 티저 영상은 과거 H.O.T.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그램 ‘개릴라 콘서트’의 명장면을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무대 위에서 안대를 풀며 관객 대신 광고 모델 확정 소식을 확인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손종욱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중동 치과 시장 공략

‘AEEDC 두바이 2026’ 참가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2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AEEDC 두바이 2026’에서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과 기자재’ 단일 분야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글로벌 전시회다. 올해는 총 177개 국가의 3900여 개 기업이 모였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핵심 장비인 유니트체어, 영상진단장비, 구

강스캐너를 포함한 ‘디지털 원스톱 진료 워크플로우’를 선보였다.

특히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유니트체어 K5의 기술력을 알렸다. 중동 지역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 편안함과 의료진 진료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특장점을 소개했다.

임플란트 제품군의 검증된 임상 데이터도 공유했다. 혈병 형성과 초기 골 유착을 개선하는 표면처리 기술이 들어간 SOI 임플란트를 비롯해 주력 제품을 공개했다. /이청하 기자

29CM, 성수동에 ‘이구홈 성수 2’ 오픈

취향 큐레이션 플랫폼 입지 다져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샵 29CM(이십구센티미터)가 서울 성수동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이구홈 성수 2(29CM HOME Seongsu 2)’를 30일 공식으로 연다. 이번 신규 매장 오픈을 기점으로 라이프스타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독보적인 취향 큐레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구홈 성수 2는 성수동 동연무장길 인근에 2개 층(2~3층), 약 169평(559㎡) 규모로 조성됐다. 1980년대부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던 구옥의 외벽과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 전층을 이구홈의 대표 색상인 밝은 옐로우 톤으로 연출해 경쾌한 감성과 빈티지 무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완성했다.

이번 매장은 1호점에서 검증된 고객 선호도를 바탕으로 큐레이션 영역을 대



이구홈 성수 2 외관 모습. /29CM

폭 확장했다. 반려용품, 육식용품, 푸드 등 신규 라인업을 추가해 총 10개의 테마 존을 구성했다.

특히 층별 카테고리를 명확히 분리해 ‘취향 만물상점’ 콘셉트를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2층은 다양한 식음료(F&B) 브랜드를 모은 ‘푸드 팬트리’ 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3층은 실제 주방과 육식을 재현한 몰입형 쇼룸으로 꾸며져 방문객이 제품을 자신의 공간에 적용한 모습을 직관적으로 상상하며 쇼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손종욱 기자

세븐일레븐

후덕죽 하이볼 나온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30일 중식대가 후덕죽 셰프와 손잡고 ‘후덕죽 유자고량주 하이볼’을, 다음 달 4일에는 ‘K-주도’ 윤나라 셰프와 함께 ‘윤주도 복분자 하이볼’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최근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 방영 이후 높아진 셰프들의 인지도를 주류 상품에 접목한 ‘주류의 콘텐츠화’ 전략의 일환이다. 앞서 최강록 셰프와 협업해 선보인 증류식 소주 ‘네오25’가 1, 2차 물량 모두 조기 완판되며 셰프 IP(지식재산권)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손종욱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삼성 오너가 워싱턴 집결... ‘이건희 컬렉션’ 한미교류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회 마무리
美 정부 관계자, 기업 경영진 등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가(家)가 ‘이건희 컬렉션’ 첫 해외 순회 전시 폐막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하워드 러트니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 등이 모두 참석하며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삼성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진행 중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기증품 해외 순회전의 첫 번째 전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개최해 오는 2월 1일까지 일반에 공개 중이다.

스미스소니언 갈라 디너에는 러트니



이재용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서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 미국 정·관계 인사, 글로벌 기업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는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 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세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웬델 워스 코닝 회장,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CEO, 누바 아페안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CEO, 베네데토 비나 페라리 CEO 등이 함께 했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및 이 회장의 딸인 이원주씨,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동현군 등이 참석했다.

전영현 삼성전자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DX부문장 사장 등 삼성의 주요 사장단도 자리에 참석자들을 맞았다.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명예관장은 귀빈들에게 이건희 선대회장이 강조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미술품 기증의 토대가 된 사회공헌 철학을 소개했다.

갈라 디너 참석자들은 전시회 관람 후 만찬을 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품격을 체험하고 한국측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한미 우호관계를 다졌다. 만찬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정누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임직원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은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금융그룹-경북대, 평생교육 활성화 협약

M금융그룹 M사회공헌재단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디지털 신기술 금융채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필 M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전무(왼쪽)와 정종철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금융



현대차 임직원들이 H-안전체험관 기공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현대차, ‘H-안전체험관’ 첫 삽

연간 2만명 몰입형 안전교육 제공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안전 체험관의 첫 삽을 떴다.

현대차는 지난 28일 울산공장에서 노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에 설립될 연면적 280평 규모의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물론, 국내 안전 체험관 중 처음으로 울산공장의 실제 생산 현장과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히 구현할 예정이다.

프로젝션 맵핑은 물리적 사물에 빛을 투영해 본래의 형태와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기법이다.

방문객은 ▲웰컴존 ▲세이프티존 ▲교통안전존 ▲사고체험존 ▲위험성평가존 ▲감성안전존 등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 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진식 “韓·中 호혜적 경제성장 견인”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중견기업계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호혜적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질·인적 왕래가 끊기지 않는 폭넓은 소통과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초청 중견기업 만찬 간담회’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견련에선 최진식 회장(사진)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최명배 와이씨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등 수석부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국은 중견기업의 최대 교역국이자 거대 소비 시장, 핵심 원자재 공급처로,



기존의 우호적 ‘딘시’(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첨단 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부문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호혜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중 정상들의 각별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류와 교역 회복의 불가역적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 기업인들은 이달 초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업무협약의 실질적인 성과가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통해 통상 균형을 회복하고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 통제 대화체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칠성음료, 페트병 자원순환 앞장

롯데칠성음료는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성식 롯데칠성음료 안전품질부문장(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홈앤쇼핑, ‘아름다운가게’ 물품 전달

홈앤쇼핑은 서울 중구 아름다운가게 명동점에 2억6000만원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홈앤쇼핑과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뜻을 함께 나눴다.

/홈앤쇼핑

LG전자,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영상 공개

다양한 고객의 가전사용 모습 담아

지난 12일 LG전자가 나이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1분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이’, ‘요리가 서툰 할아버지’ 등 다양한 고객이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가전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번 영상은 장애인, 시니어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100만회에 육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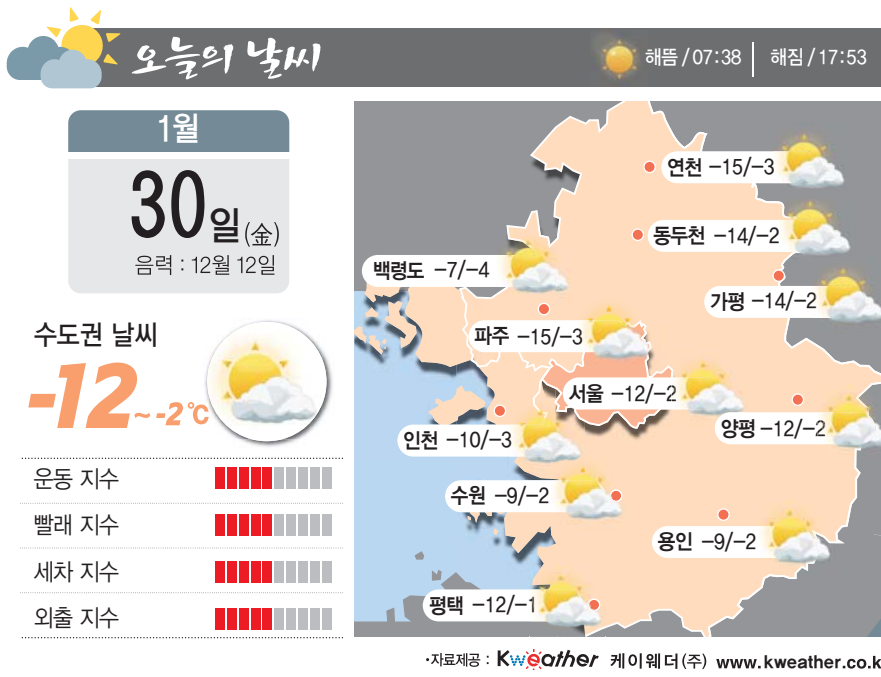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영상 갈무리. /LG전자

는 등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시니어 고객 등이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이때까지 공개된 영상은 총 23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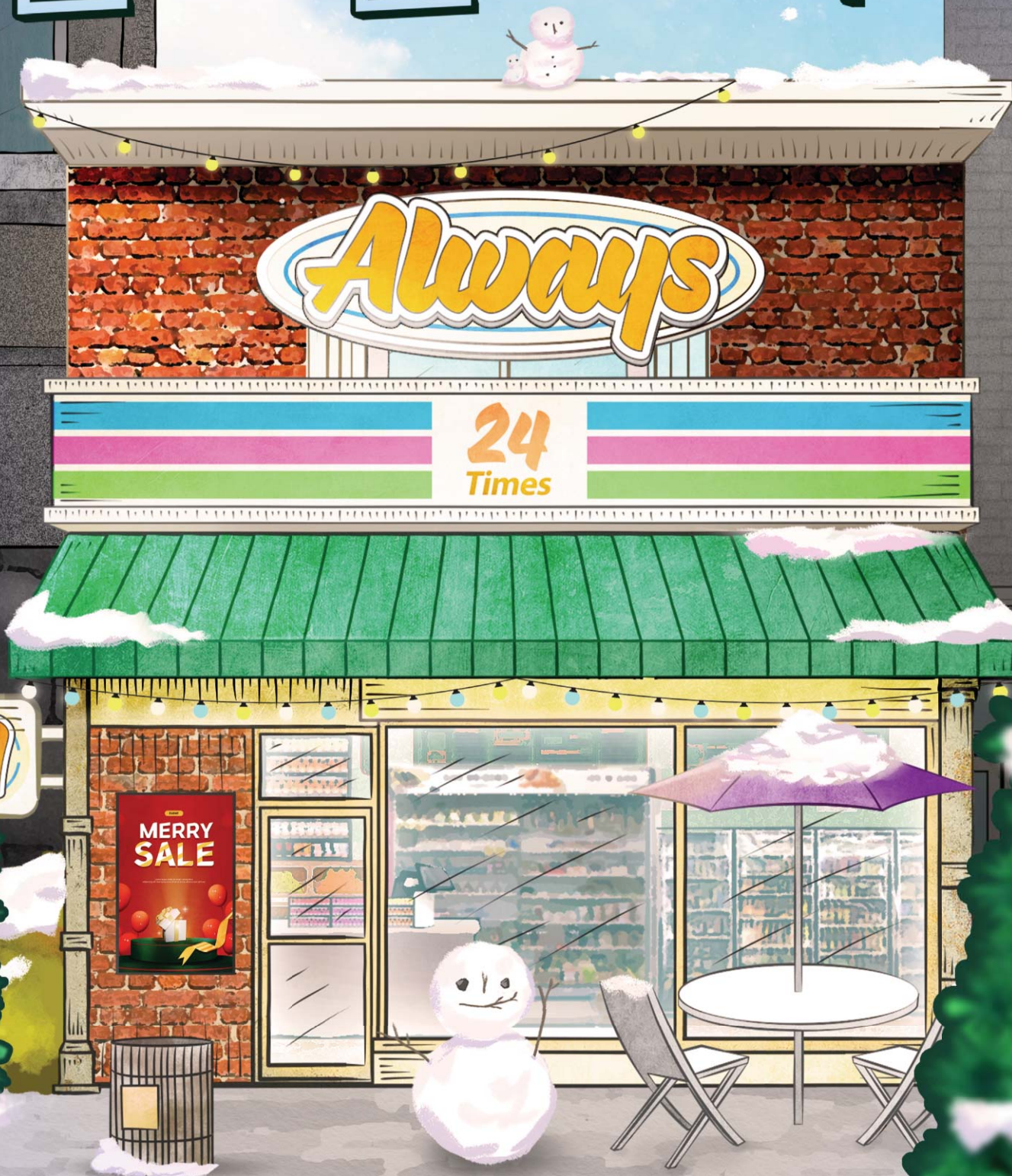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라면보다 맛있고, 커피보다 따뜻한,
삼각김밥보다 짭 찬 우리의 이야기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열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주최·주관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열의자출판사 waterfall story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인간 노조 vs 로봇 노조



김승호의
시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

현대차 노조가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방침에 반대하며 최근 내놓은 입장이다. 이에 앞서 현대차측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의 부품 작업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CES에서 첫 선을 보인 아틀라스는 56개의 자유도(DoF)를 갖춰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 최대 50kg의 무게를 들어 2.3m의 높이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업계에선 아틀라스의 대당 가격을 약 13만~14만 달러로 추정한다. 우리돈 2억 원 정도면 1대를 살 수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연봉이 약 8만 달러이고 이를 2교대로 돌린다고 하면 아틀라스 1대로 2년이면 본전을 뽑는다.

게다가 아틀라스의 생산량이 연간 1만 대를 넘어서면 가격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나온다.

10만 달러인 아틀라스를 5년간 하루 24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운용비용은 3.4달러 정도로, 사람 인건비의 약 10% 수준이다. 사람이 2교대하는 대신 로봇을 투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성비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기업으로선 로봇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로봇은 파업, 태업 등 쟁의도 없어 경영자 입장에서 금상첨화다.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은 자동화가 더욱 절실하다. 로봇은 인력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방에 있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의 모습에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투영된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섬유 제조에 쓰이던 기계를 파괴했다.

19세기의 러다이트 운동이 21세기 들어 인간과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의 줄다리기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로봇을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수단’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시각은 양분된다. 한쪽에선 기술 전환을 위한 비용을 놓고 벌어진 최초의 사회적 저항으로 평가한다. 당시 사회에 노동시간 규제, 노사 합의 제도 같은 인간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시대에 맞는 옳은 질문을 던지면서다.

하지만 러다이트 운동을 흠평하는 쪽은 사람들이 기술을 거부하면서도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화는 진행됐고 인간은 기계에 밀려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인간이 만든 노조는 러다이트 운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전통화와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잃으면 문닫을 수 밖에 없다. 로봇과 제대로 싸워보기전에 사람이 먼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노조가 공존과 공생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하는 이유다.

좀더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인간 노조가 자칫 로봇들이 만든 ‘신금속노조’와 싸울 날도 머지 않은 듯 하다.

/bada@metroseoul.co.kr

오르는 증시, 마냥 웃지 못하는 한국거래소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불과 7개월여 만에 현실화됐다. 파죽지세로 상승한 코스피는 이제 5000이 ‘뉴노멀’이 됐고, 6000, 7000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시 랠리를 한국거래소의 성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존재한다. 코스피 5000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었다. 사실상 한국거래소는 흐름 위에 올라탄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취임 첫해인 2024년 말 코스피는 2399.49포인트로 마감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코스피는 하반기에만 14% 추락하며

주요국 중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미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55개사로, 총 상장사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코스닥 기업의 참여율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다사다난했다. 2025년 3월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전 종목의 주식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평가된다.

더불어 증시 상승세가 한국거래소의 위상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로 출

범한 넥스트레이드(NXT)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넥스트레이드는 등장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기록하며 한국거래소의 입지를 위협했다.

그래서일까. 정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12시간 거래’,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라는 빠듯한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분부는 “정 이사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과 노동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제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한국거래소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상승장의 과실을 누리기보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득에 무게를 뉘야 할 때다.

/godhe@

김상회의四季

스토킹의 위험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잠재적인 강력범죄의 씨앗으로 떠오른 것이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피해자의 일생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이다. 과거의 스토킹은 전화를 계속하거나 집 앞에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토킹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 문자 메시지, SNS, DM,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취한다. 더 심해지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훔친다. 피해자는 24시간 감시당하고 누군가 자기를 해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직장 또는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위협은 보복 범죄다. 경찰에 연락해서 스토킹을 못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와 가족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생기고 있다. 이별 살인 범죄가 종종 벌어지는 것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법적으로 스토킹을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법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스토킹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강력범죄의 시발점이라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안전이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고 가족까지 무너진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폭력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을 간절히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7 1 9 8 2 6 1

1 6 2 7 9 5 8 9 9

2 9 8 8 1 6 9 1 7

8 9 6 1 8 7 2 9 2

2 8 1 9 2 9 7 6 6

7 2 9 6 2 8 8 1 9

6 1 8 7 9 2 9 2 8

8 1 9 9 6 2 1 7 8

9 7 2 8 8 1 6 9 2

9 6 9 7 8 1 2 2 8

2 1 8 9 8 2 6 7 9

7 2 8 9 2 6 8 9 1

1 7 2 8 6 9 8 9 2

8 9 8 2 2 7 1 6

6 8 2 1 9 7 2 8 9

2 9 6 2 1 8 9 7 6

8 2 1 2 7 9 9 6 8

9 8 7 6 9 8 1 2 2

로랑 풍소, 부르고뉴 대자연과 신기술의 절묘한 조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0

“21세기의 신기술을 이용해 대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담기로 했다.”

언뜻 보면 신기술과 대자연이 대척점에 있는듯 하지만 로랑 풍소 와인에 있어 신기술은 대 자연을 담기 위한 훌륭한 도구다. 보수적인 프랑스 내에서도 지극히 고전적인 부르고뉴 와인인데 우주에서 온 듯한 회색 레이블에, 천연 코르크가 아닌 인공 마개다. 와인병에 내장된 근거리 무선 통신(NFC) 칩은 태그할 때마다 IP가 바뀌면서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게 해냈다.

◆대자연에 대한 존경…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에서

로랑 풍소(Laurent Ponsot·사진)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대자연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라며 “자연이 실행하는 모든 것을 담아 가장 진정성 있고 순수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에서 나온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와인메이커(Winemaker)가 아닌 양조학자(Oenologist)라고 칭한다.

로랑은 “부르고뉴는 길이 70km, 평균 폭 1km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1200



로랑 풍소 부르고뉴 블랑 쿠티르 뒤 페르스 네주 2022, 로랑 풍소 뫼르스 쿠티르 뒤 판도레아 2022, 로랑 풍소 부르고뉴 루즈 쿠티르 데 페플리에 2022, 로랑 풍소 주브레 샹베르탕 쿠티르 드 몰론 2022, 로랑 풍소 샹블 뤼지니 프리미에 크뤼 레 샤름 쿠티르 뒤 티올 2018, 로랑 풍소 클로드 부조 그랑 크뤼 쿠티르 뒤 세드르 2019.

/안상미 기자



개의 아펠라시옹(appellation·원산지 통제 명칭)이 있으며, 와인 생산지는 그보다도 많다”며 “바로 옆에 위치한 포도밭도 특징이다

를만큼 작은 플롯마다 나타나는 사소한 차이라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쁜 포도로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순 있겠지만 많은 조작과 첨가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2024년엔 단 한 병의 와인도 만들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왔고,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자체 포도밭에서 키운 포도조차 모두 외부에 팔아치웠다.

기억하시라. 행여 수십 년 후에도 어디선가 로랑 풍소 2024년 빈티지가 보인다면 모두 가짜다. (로랑은 희대의 와

인사기꾼으로 꼽히는 루디 커니아완을 잡아내는데 공헌한 이들 중 한 명이다. 로랑 풍소 와인에 위조품을 방지하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도 그래서다.)

◆가장 부르고뉴답게…가장 하이테크적인

사실 로랑은 부르고뉴에서도 역사 깊은 가문 도멘 풍소(Domaine Ponsot)의 일원이다. 36년간 도멘 풍소를 몸 담았다가 2017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메종 로랑 풍소를 설립해 나왔다.

떠날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와이너리 명을 보면 답은 보인다. 부르고뉴에서 ‘도멘’은 자신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를, ‘메종’은 여러 곳에서 포도를 사서 와인을 만드는 상인을 말하는 네고시양 하우스다.

최근에는 도멘이 고품질 와인의 상징

처럼 됐지만 부르고뉴의 정체성은 네고시양에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부르고뉴는 네고시양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들이 부르고뉴의 명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이 가장 좋은 원단과 자재를 찾아 자신만의 고급 맞춤 의상을 만드는 오프 쿠티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적 기술 역시 오프 쿠티르 부르고뉴를 구현하기 위한 부자재다. 와인 양조 과정에서는 이산화황이나 인공 효모나 효소를 쓰지 않기 위해, 병입된 이후에는 온도변화나 코르크 문제로 와인이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와인고동일시했던 코르크 마개와 오크통을 신기술로 대체하는 일은 업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크통을 대체하는 신기술은 리서치를 진행 중이다.

로랑은 “오크 배럴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와인 숙성 중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오크 배럴과 비슷한 밀도로 와인이 숨을 쉬고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배럴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오프 쿠티르 부르고뉴…로랑 풍소 컬렉션

이제 오프 쿠티르 부르고뉴의 로랑 풍소 컬렉션을 만나볼 차례다. 와인 레이블은 미래적인 회색빛에 나사(NASA)에서 따온 폰트로 되어 있지만 와인 이름은 자연에서 따왔다.

화이트 와인에는 꽃, 레드 와인에는 나무 이름을 붙였다. 별명처럼 말이다. 부르고뉴 세부 생산지가 어려웠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좋다.

로랑은 “별명같은 꽃과 나무 이름은 와인의 아로마나 맛의 특징이 아니라 지향하는 이미지나 떠오랐던 영감”이라며 “숙성 잠재력이 있는 레드 와인의 경우 깊이 뿌리내려 더 성장라는 의미에서 나무로 붙였다”고 설명했다.

‘로랑 풍소 뫼르스 쿠티르 뒤 판도레아 2022’는 8명의 재배자가 15개 플롯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들었다. 보편적인 뫼르소를 대표하는 ‘유니버설 뫼르소’가 지향점이다. 판도레아는 부르고뉴에서 자생하는 흰 덩굴꽃을 말한다. 풍성한 과실향이 나는가 하더니 입에서는 드라이하면서도 녹진하게 좋은 질감이 입 안을 파고든다.

로랑은 화이트는 물론 레드 와인도 새 오크를 쓰지 않는다.

‘로랑 풍소 부르고뉴 루즈 쿠티르 데 페플리에 2022’는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정석을 보여준다. 페플리에에는 포플러 나무를 말한다. 잘 익은 과실부터 허브, 연필심같은 미네랄 향에 부드럽지만 분명 존재감 있는 타닌이 산도와 균형을 이룬다. 기본급이지만 로랑이 추구한 순수함이 이런건가 싶은 와인이다.

‘로랑 풍소 클로드 부조 그랑 크뤼 쿠티르 뒤 세드르 2019’는 잘 익은 검은 체리와 꽃향, 감초까지 좋은 향수를 맡는 듯하다. 그랑 크뤼의 구조감을 가지면서도 과실은 우아하고,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세드르는 삼나무를 뜻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메가 온리’ 2월 라인업 공개

밸런타인데이 겨냥 로맨틱 무비
서브컬처 애니 IP 등 총 7편 선봬



메가박스 2월 단독 상영작.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단독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MEGA ONLY)’의 2월 라인업을 공개하며 극장 관람의 차별화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애니메이션, 라이브뷰잉 무대 공연, 문학 원작 대서사, 다큐멘터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한 달간 선보인다.

2월 ‘메가온리’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한 로맨틱 무비와 서브컬처 팬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IP, 그리고 극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포맷의 공연 상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영작은 총 7편으로, 취향 기반 관람 수요를 정조준한다.

포문은 4일 개봉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원’이 연다. A24의 신작으로 사후세계의 환승역에서 65년을 함께한 남편과 생전에 사별한 첫사랑을 동시에 재회한 여인의 선택을 그린다.

5일에는 기상천외한 액션 활극 ‘언더 닌자’가 관객을 만난다. 현실에 닌자가 존재한다는 설정 아래, 공식 닌자 조직

과 탈주 닌자의 대립을 그린 작품으로, 만화가 하나자와 켄고의 동명 원작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8일에는 애니메이션 IP를 무대로 확장한 ‘기타로 탄생 계계계의 수수께끼’가 라이브뷰잉으로 상영된다. 2.5D 무대 공연을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형식이다.

문학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작도 합류한다. 13일 개봉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프랑스에서만 94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이다. 알렉산드르 뒤마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구원과 재탄생으로 서사를 확장했다.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롯데시네마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2026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6년 아카데미 기획전’을 통해 ‘국보’, ‘그저 사고였을 뿐’, ‘리틀

아멜리’, ‘센티멘탈 밸류’,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 ‘아르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주도피아2’, ‘햄넷’까지 총 10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영화 팬들이 아카데미 수상 결과를 예측하

며 작품의 감동을 미리 만끽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2관왕을 차지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아르코’, 셰익스피어와 아내 아네스의 이야기를 그린 ‘햄넷’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최초 공개된다. 정식 개봉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의 몰입감 있는 환경에서 명작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LG U+, 현대미술가 권오상 개인전 열어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 by U+’에서 현대미술가 권오상의 개인전 ‘권오상의 Simplicity: AI, 인간 그리고 예술’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 공간 속에서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주제인 ‘심플렉시티(Simplicity)’는 단순함과 복잡함의 공존을 뜻하는 개념으로, 복잡한 기술 환경 속에서 명확한 경험을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을 예술적으로 해석했다.

권오상 작가는 다수의 2차원 사진을 해체·재조합해 입체 조각으로 완성하는 ‘사진 조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는 AI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작가는 하나의 형상 안에 다양한 시점과 정보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심플렉시티의 개념을 설명한다.

전시는 1층부터 4층까지 전관을 활용해 ‘잉태-탄생-환원’의 흐름으로 구성



사진은 일상비일상의틈 by U+에서 관람객들이 익시오 AI 도구를 이용해 권오상 작가의 전시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됐다. 1층에는 ‘에어매스’ 시리즈와 릴리프 작품이, 3층에는 대표적인 ‘데오도란트’ 시리즈가 전시된다. 4층에서는 모빌 작품을 통해 조형 언어의 확장을 보여준다.



▲日 학생 자살 ‘역대 최다’…전체는 2만명 아래로
▲美루비오 “시진핑, 대만 무력침공은 역사적 과제로 간주”

/사진 뉴시스

▲프랑스, 우크라이나 연내 전투기·방공망·항공 폭탄 추가 인도
▲이라크 바그다드서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대규모 시위

▲프레티에 총 쏜 연방 이민단속 요원 2명 직무정지
▲美·덴마크·그린란드, 첫 실무회담…나토 역할·3자 관계 설정 협의



식품업계
이유식도 간식도
프리미엄
L1



Life

유동가
행사·무료배송 등
설 대목 공략
L2



생산적금융·AX 속도… 은행·보험·증권 시너지로 판 키운다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은행·보험·증권을 3대 축으로 경쟁력 강화와 '종합금융그룹'의 역량 강화가 경영 목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발맞춘 전략산업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역량 확대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AX)도 가속한다.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신년사에서 “은행·보험·증권을 중심으로 종합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다지고, 시너지 기반의 성장을 가속하겠다.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열사 간 협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출범한 우리투자증권, 2025년 우리금융에 합류한 동양·ABL생명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은행 매출 의존도가 특히 높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금융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한 비중은 10% 미만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 비중이 가장 큰 KB금융은 39%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금융권 패러다임 변화로 은행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비은행 강화는 금융권의 주요한 경영 목표다.

지난 2019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래 비은행 부문 강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과제였지만, 작년 7월 동양·ABL생명이 계열사로 합류하면서 판도가 변했다. 전년 대비 1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한 우리투자증권도 비은행 이익 성장에 일조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비은행 매출 비중은 18%로 성장했다. 이는 2021년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이후 최고치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우리금융 계열사 경영진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챗GPT 활용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역량 강화 '경영목표' 핵심사업 경쟁력·계열사 협업 확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시너지 창출 동양·ABL생명 통합·체질개선 과제

80조 규모 생산적금융·상생금융 공급 AI기반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AI 활용 확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선제 대응 신사업 분야 미래 경쟁력 강화할 것

임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당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와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어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이후 “작년과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을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위해 우리금융의 남은 과제는 동양·ABL생명의 통합 및 체질 개선이다. 두 보험사의 완전 통합까지는 향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보험사 모두 타 금융지주의 보험 계열사 대비 실적 부진과 낮은 지급여력(K-ICS)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도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난해 3분기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1년 만에 전년 대비 123%의 높은 누적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순이익 규모는 212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금융그룹 증권사들은 1500~5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중기 목표인 중투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도 과제다.

◆ '생산적금융' 속도… '디지털 전환' 가속

우리금융은 올해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고객 기반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이 강점을 갖춘 기업금융분야에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의 생산적금융 프로그램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오는 2030년까지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상생금융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은행·보험·캐피탈·증권 등 자회사가 출자한 금액을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작년 말 출범했으며, 전략 산업·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도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또한 지난해부터 영업점·인터넷 뱅킹에서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AX)도 가속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생생형 AI 기반 'AI대출상담원'을 고도화해 비대면 대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AI 상담원이 대출 담당 직원의 상담에 앞서 상품 정보 중심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지만, 개선을 통해 AI가 심사에 앞서 대출 목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자사 인터넷 뱅킹 앱에 AI 기반 '스미싱 문자 안심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의심 여부를 탐지하고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해, 고도화하는 문자결제사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융은 계열사의 AI 기반 서비스를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는 한편, 임직원의 AI 활용 능력도 제고한다. 또한 올 상반기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증권형토큰(STO) 등 가상자산 분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잠재적 고객과의 점진적 확대한다는 목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투자·융자로 폭넓게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우리금융이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강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AX)을 가속해 그룹의 AI 역량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신사업 분야에서의 미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NBA 클리블랜드, 레이커스에 129-99 대승… 5연승 질주 /사진 뉴시스
▲두산 새 외인 카메론·다무라, 첫인상부터 합격 점…“페이스 끌어올릴 것”

▲김은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아시아 소프트볼연맹 부회장 연임
▲골프협회,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 2000만원 지원

▲SSG 화이트·다케다, 캠프 첫 볼펜 투구…“준비 잘했다”·“커브 수준급”
▲‘2018 마스터스 챔피언’ 리드, LIV 골프 떠나 PGA 투어 복귀